

으뜸상

최우수상

우연은 늘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은빛연어와 나의 만남. 그것은 분명 우연이다. 참 깨끗하고 맑아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소중한 만남을 나는 굳이 우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기억을 아무리 살살이 더듬어봐도 자연과 대화를 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부모

님과 함께 놀러간 강가에서 물고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산에서 다람쥐를 보았을 때에도 언제나 그들은 나를 피하기만 했다. 어렸을 때에 나는 그들을 보면서 단순하게도 그 행동들이 본능인 줄 알았

연어라는 말 속에는

인간 냄새가 난다

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엔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동들이 결코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은빛연어를 통해 너무도 잘 배우게 되었다. 왜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나빠만 보이는 것일까? 아마도 인간은 늘 자신보다 낮추어 보는 것을 즐기기 때문인 것 같다.

은빛연어의 가슴은 참 맑아서, 두 번째로 만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첫 장을 넘기는 내 마음가짐이 사뭇 진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이 연어라는 책을 통해 인간과 본질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깊이 갈망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래서 가능한, 연어를 위가 아닌 옆에서 바라보기 위해 내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눈물로 바라보고 아픔으로 느끼고 싶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귄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은빛연어에게 유난히 친근감을 느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빛연어를 만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는 벌써 눈물을 떨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다 빛을 띠는 다른 연어들과는 달리 등쪽이 온통 은빛으로 번쩍거려 잘 드러나는 은빛연어는 그 빛으로 인해 사나운 물수리의 아침식사 표적이 된다. 물수리의 매서운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은빛연어 대신 물수리의 밥이 되는 누나 연어의 한없



는 사랑 때문에 나는 여지없이 슬퍼지고 만다. 형제가 없어서 그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나인지라, 은빛연어가 물수리의 발톱에 찍혀 잡혀가는 누나 연어를 보며 애처롭게,

“누나……”



하고 설움 고인 목소리로 탄식할 때에는 북받치는 슬픔에 은빛연어와 함께 울어버리고 말았다. 피로 이어진 사랑이 일으키는 힘은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연어들은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연어들의 입을 통해서나 자신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연어들은 남들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잠시 나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빛연어는 은빛을 띠는 비늘 때문에 동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왕따이다. 그래서 서글픈 은빛연어가 동무들에게,

“내 비늘을 보지 말고 내면을 봐주렴”

하고 간곡히 말하지만 내면을 어떻게 보냐고 쏘아 붙이는 동무 연어들을 보면서 그 서러움을 나도 함께 가슴으로 느껴본다. 언제나 그 맑은 영혼만은 잃지 않는 은빛연어. 내가 은빛연어에게 가장 부러움을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꿈이다. 위험을 무릅쓰고서 바다의 가슴을 열어 저 먼 밤하늘을 장식하는 별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순수함, 그리고 맑디 맑은 영혼.

은빛연어는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배경의 행복함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의 배경이 된다는 것. 별은 어두운 밤하늘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줌으로써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강물은 연어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슬러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맞춰 나가고 싶어 했던 나의 부질없고 부끄러운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음의 눈으로 별을 바라보느라 정신을 빼앗긴 사이, 불곰에게 잡아먹힐 뻔한 은빛연어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친구, 눈 맑은 연어의 참된 사랑을 지켜보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가슴 훈훈해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과연 내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내던지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쉽게 말로 내뱉을지 모르나, 막상 다급한 상황이 오면 분명 나는 하나뿐인 목숨 때문에 수없이 괴로운 갈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함이 가슴을 밀고 들어와서, 내 자신이 보통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사랑. 그것은 세상 어느 곳이나 늘 존재하면서 누군가의 가슴을 기쁨과 기대로 고동치게 만든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진정한 사랑, 그리고 떨림은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걸 얼마나 여러 존재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조금은 알고 있다.

“네가 아프지 않으면 나도 아프지 않은 거야.”

은빛연어에게 이 말을 던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성급히 숨어버리는 눈 맑은 연어의 모습이 내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자아낸다. 사랑…… ‘그리움’ 이라고 일컫기엔 너무나 크고, ‘기다림’ 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넓은 이 느낌. 저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생명이 소중한, 그리고 자연이 결코 심심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리라.

항상 더 나은 이상을 위해 사색하는 은빛연어의 생각의 깊이에서 나는 그동안 골치 아프다는 핑계로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했던 내 자신의 한심함을 여지없이 느끼고 또 한번 실망하고 만다. 만약 내게 누군가가,

“넌 희망이 뭐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 나도 은빛연어처럼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와 은빛연어는 같을 수가 없다. 수많은 희망을 가슴 깊숙이 품고 있어서 한꺼번에 말할 수 없는 것과, 나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아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감히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꿈. 희망. 힘겹지만 아름다운 것. 언젠가 이런 격언을 들은 적이 있다. <좀 더 높은 이상이 없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개미떼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상.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놓는 것일까?

은빛언어와 함께 하면서 내가 수 차례 동감하고 감격했던 이유 중의 일부는 바로 초록강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흐르는 이유를 언어들을 거슬러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남을 위한 시각, 입장을 바꾼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 또한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느끼고 생각한다. 다른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 말을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가짐은 참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이의 배경이 되기 위해 존재할 때, 자신까지도 비로소 진정으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연어 떼처럼……. 하루 빨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자연이 있기에 인간이 빛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바랄 뿐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언어를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몇 십 배나 되는 높이의 폭포를 뛰어넘는 언어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 아직까지 그 장면만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폭포, 언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커다란 장벽. 솔직히 나는 언어를 위한답시고 계단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터진다. 그 사람들은 언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 사랑한다면 먹이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던가. 희생과 고통 뒤에 오는 희열이 얼마나 값지고 고결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애타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언어가 폭포를 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희생과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이겨내고 놀라



운 정신력으로 힘차게 폭포를 차고 뛰어오르는 연어를 기다렸다가 그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은빛연어 앞에서, 나는 잠시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오염시킨 물로 인해 등이 옆으로 휘어버린 연어도 있다. 은빛연어가 그런 등급은 연어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계속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자,

“너는 입도 없니!”

라고 끝내는 소리를 치고 만다. 아차! 사실 그 등급은 연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연어였던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해서 배지느러미만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을 등급은 연어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차마 그 어떤 동정의 말도 건낼 수가 없었다. 내가 무심코 흘려버린 샴푸나 트리오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매웠기 때문이다.

폭포 앞에 다다른 연어들이 폭포를 넘는 방법 때문에 토론을 할 때에는 정말 흥미진진했다. 꼭 여러 부류의 인간들을 보는 듯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낮출 줄 모르고 제 멋에 사는 주둥이큰연어. 지식은 그 누구보다 많지만 선생님이라고 보기엔 도덕성이 결여된 지느러미긴연어. 우두머리 턱큰연어의 힘만 믿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엉터리쪽집게연어. 어느 곳이나 늘 이런 부류는 존재하기 마련인가 보다. 그런데 이 연어들을 보면서 혹시 그 동안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어들과는 달리 내게 작지만 진한 커피향 같은 여운을 남겨준 연어가 있다면 그는 바로 뻘뻘마른연어. 언제나 다른 연어들의 안락을 위해 연구하느라 뻘뻘 말라버린 뻘뻘마른연어. 결국 나중에는 연어들이 쉽게 폭포를 오를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을 찾고 그곳의 위험도를 몸소 확인하고 와서 지쳐 죽고만다. 정말이지 몸으로 연구하는 그의 정신만큼은 인간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찬란한 감동의 물결이 아닐 수가 없다.

모두들 뻘뻘마른연어가 찾아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찰나, 용기를 내어 나서서

새끼연어들을 위해 폭포를 넘어야만 한다고 또렷이 주장하는 은빛연어의 용기있는 모습이 모든 연어들의 마음을 바꾸었을 때 왜 내 어깨가 으쓱거리던지……. 뻐뻐마른 연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다. 연어들이 폭포를 뛰어넘는 장면을, 낚싯대가 아닌 카메라로 찍고 있는 사람들과 은빛연어가 만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는 정말 흐뭇했다.

드디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알 낳는 순간이 다가왔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지느러미가 찢어지고 헤진 형겅처럼 닳아 가는 주둥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란터를 마련하는 눈맑은연어에게서 불타오르는 모성애를 보았다. 연어에게 알을 낳는다는 것은 곧 기나긴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이다. 눈맑은연어와 은빛연어가 이루어낸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장 장엄하고 슬픈 풍경. 누가 이토록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을 애처롭다고 표현했던가. 혼신을 다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고 가는 이들의 가장 눈부신 뒷모습을 누가 슬프다고 표현했던가. 새삼스레 부모님의 소중함과 나의 행복이 뼈 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느낌이다. 가시고기라는 책의 이런 구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자기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는 사람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연어 속에서 나는 맑은 영혼을 지닌 한 인간을 본다. 그리고 소멸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낀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나는 연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동안의 나를 벗고 연어가 된다.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이해하고 아픔을 동감하며 함께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꿈을 갖는다는 것, 가슴을 몽클하게 만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행운인 것 같다. 그 목마름으로 인해 한 생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삶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해 준 은빛연어. 이제 조금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굳은 다짐과 함께…….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늘 그곳을 지키는 것이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다. 언제나 모금함의 모금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했다. 절반 정도 채워진 상태로 1년을, 아니 몇 년을 보내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과연 저 동전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

우리에게 남기는

호소력 있는 외침

일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나 자신도 모금함에 제대로 넣지 않으면서 말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비단 고통 속에서 아이다움을 잃어 가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만 있을까? 지구에서 1분에 20명씩, 3초에 1명꼴로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던지 아이들의 아픔은 나에게 신문이나 공익광고에 나오는 흘러가는 이야기와 같았다. 하지만 『토토의 눈물』에서 접한 현실은 잔인했다. 굶주림보다는 에이즈가 낫다는 매춘소녀, 영양실조로 여섯 살의 나이에 기어다녀야 하는 탄자니아 소년, 인형 속에 장치된 폭탄으로 죽어간 보스니아 아이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무지와 무관심이 때로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커다란 슬픔이 차 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고통을 알고 그 아픔에 가슴 깊이 공명하는 마음. 그 눈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다.

'에이즈에 걸리는 건 한참 뒤에 죽지만 매춘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들은 당장 죽게 되요.' 매춘을 하던 어린아이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자신의 처장을 위해 원조교체를 하는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그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다. 어른들의 이기심에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죽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서는 '정말 내가 세상에 몰들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형 속에 장치된 폭탄의 내용들은 너무나 가슴을 여미게 하였다. 어른들의 전

쟁으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슬픈 현실인데,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것.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살을 택하는 어린이들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삶이 고달프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영혼들은 어떻게든 살려는 의지 하나만으로 꾀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태어나서 속한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고 무슨 주의를 내세우는지에 상관 없이 우선은 목숨을 구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증할 수 있어야 여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불량국가,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들은 죽거나 다치고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우세해서 남을 억누르고 지배해야 하는 이들의 이기심이 세상을 얼마나 멍들고 병들게 하는지 다시 보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에 그친다면, 그 또한 문제를 방기함으로써 포악한 어른들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TV나 신문을 통해 연례행사처럼 전해지는 소식을 스쳐가면서, '쫄쫄' 혀를 차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처 모를 것이다.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코끼리나 얼룩말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에겐 동물원도 텔레비전도 그림책도 없기 때문에, 평생 그런 동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무 처참한 현실에 불쌍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불행을 그 아이들에게 떠맡긴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아이는 굶주림으로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며, 어떤 아이는 등에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달릴 것이며, 어떤 아이는 부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될 수도 없고 많은 돈을 기금으로 낼 수도 없다. 그러나 다음 번에는 은행의 모금함에, 동전 모금함에 1,000원이라도 넣어 볼까 한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자신보다 좋지 않은 생활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나는 다시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본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궁무진한 꿈을 가지고 있을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꿈들을 접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물자 아까운 줄 모르고 풍족히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읽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고 부모님께 불평 불만이 많고,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고, 남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나와 무슨 상관 있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우리의 무관심과 그릇된 이기심이 다른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와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도록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장이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상 이해가 어려워 공감을 이끌어내기까지 힘들 수도 있겠으니 부모들이 읽어주고 설명을 보탠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쌀뱅이를 아시나요」를 읽기 전에는 쌀뱅이가 옛날 할머니들이 잡수시던 군것질 거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쌀뱅이는 전쟁 중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미국 군인과 우리나라 엄마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별명이었다. 백인이라 살이 쌀처럼 하얗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간 쌀뱅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시

자 아버지의 나라 미국으로 가 아줌마가 된 다음에 자기와 놀아 주던 순애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낸 것이다.

전쟁은 슬픔을 남겨요

‘쌀뱅이를 아시나요’ 하며 시작되는 광

고를 보고 아줌마 순애가 쌀뱅이를 찾아가 같이 고향을 보러 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전쟁이 참 슬프다고 생각했다. 전쟁 때문에 미군이 우리를 도와 주러 오게 되고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미군을 사랑하여 쌀뱅이처럼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났다. 백인이 아닌 흑인 혼혈아들을 지금도 가끔 보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외국 사람 같다. 한국 사람 속에서 자라나는 혼혈아들은 많은 놀림을 받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 생활을 한다.

이 땅에서 혼혈아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인가 보다. 얼마 전 TV에서 연예인 언니가 자기도 혼혈이라고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정말 불쌍했다. 혼혈이라고 밝히면 놀릴까봐 꾀꾀 감추고 살았다고 한다. 거짓말 하면서 마음 아프게 살아 온 연예인 언니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제는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 주어야 할 것 같다. 언니는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자꾸 죄송하단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인 것 같은데…….

이 책 속에서도 쌀뱅이는 혼자 외로웠는데 마침 순애라는 착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친구와의 추억이 있었기에 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혼혈아가 되었는데 친구들은 왜 쌀뱅이를 놀렸을까?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모습은 미국 사람 같아도 말과 모든 문화는 우리나라

라 사람인데 외모가 다르다고 놀리며 따돌리는 것은 나쁜 행동 같다. 외모로 친구를 판단하거나 사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전쟁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혼혈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나라랑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더불어 돕고 살 수 없고 놀려서 힘들게 만들까?

이라크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들이 생기고 굶주리고 아파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 6·25전쟁도 이렇게 무서웠겠지. 전쟁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어 슬픔을 주고, 폭탄으로 많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전쟁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나누며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혼 간디가 걸어간 진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

그는 인도인들에게 ‘위대한 혼’(마하트마)으로, 우리에게는 ‘비폭력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존의 수많은 명성 속에 가려진 간디의 인간적인 모습이 담겨진 「간디 자서전」은 스스로의 삶을 고백한 소박한 기록들이다.

탁시 최우승은 말한다

함석헌 선생의 문체로 번역된 이 책은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 지치고 병들었던 민족이 새 생명을 얻고, 침략자들을 물리친 데에 간디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여

실히 보여준다.

함석헌 선생은 이승만 정부 시절 우리 사회의 미몽을 뒤흔든 사자후(1956년 〈사상계〉의 ‘할 말이 있다’)로 유명하다. 싸우는 평화주의자 함석헌 선생의 기독교적 바탕 위에서 번역된 「간디 자서전」은 함석헌 선생의 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된다.

계급과 종교의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의 발전을 이끈 지도자 간디를 통해 이 땅에서 진리와 사랑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함석헌 선생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세례를 받고, 간디의 지팡이를 짚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와서 산 이가 함석헌’이라는 그의 편력을 함축한 말 속에 재야 사상가를 넘어 선생의 역사관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진보는 삶의 단순화라고 말하는 간디의 물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복잡해진 현대의 사상의 조류와 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의 모습이다. 비폭력, 불복종 그리고 무소유를 몸소 실천했던 간디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한 장의 초상으로 남아 현대인의 가슴 속에 매아리치고 있다.

‘밀바닥을 흔드는, 급소 중의 급소를 꿰뚫어 보는 천재’라고 격찬한 네루의 말처럼 간디는 식민지 인도의 독립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 해방을 위한

‘진리의 선언’으로 승화됨으로써 영원한 메시지가 되어 우리 앞에 살아있다.

「간디 자서전」은 간디의 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간디의 목소리로 성장과 배경,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 역정을 소탈하고 솔직한 문체로 이어가고 있다.

나는 가끔씩 간디의 작은 실수와 걱정거리에 웃음을 지었고, 그의 소박한 정신에 감동되었다. 그는 이 책의 제목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라고 붙여 놓았다.

「간디 자서전」은 비폭력의 실험, 독신생활의 실험 등 여러가지 행동 원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간디에게 진리는 최고의 원리요 다른 여러 가지 원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찾아가는 자는 티끌보다도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 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티끌에게조차도 짓밟힐 수 있을만큼 겸손해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그가 진리 실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이다.

간디는 바이샤 계급의 평민 출신이었다. 독자가 읽기엔 영민하고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어린 시절을 보낸 듯 하지만 그 자신은 수줍음이 많았고 남들과 어울리기 싫어하여 공부를 좋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말이 적고 수줍음이 많은 그의 성격이 때때로 장애가 되기도 하였지만 약점이 그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 주었다. 진리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었고 그 자신을 자라게 하였다고 한다.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영국 유학을 하는 동안 채식을 실천하려 안간힘 쓰는 모습,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청년 간디의 고뇌는 참으로 숭고해 보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참 맛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채식실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넓은 집과 거리를 분주히 걸어다니는 간디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가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로 향하는 길에서 겪은 수모,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평생 동포들을 위해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항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가족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했고, 늘 확실에서 불확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식과 음식의 제한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고 늘 생활 속에서 가난을 실천했다. 자신에 대해 늘 깨어있고 절제하는 모습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신화 속에 가려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거대한 분노와 무참한 보복으로 물든 폭력의 21세기 한 가운데서 나는 간디의 위대한 혼을 만날 수 있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이념과 종교의 분열 속에서 피로 물든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간디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다. 나지막한 그의 진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 그의 음성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남긴 정신적 폐허는 어쩌면 인류의 후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과 보복이 이 시대의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목소리로 살아나는 비폭력, 무소유의 간디를 우리는 다시 재조명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민중의 정신적 원천으로서 치열히 생을 살아온 간디. 그는 이 시대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 귀중한 귀감이요 보석같은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효심 지극했던 아들로서, 부단히 정결을 지키려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았으나 그의 생애는 구도자보다 더 신에 가깝고 치열하였다. 몸소 가난과 헐벗음을 실천했던 그가 남긴 슬리퍼 한 켤레, 안경, 피 묻은 옷, 시신을 태운 재를 담았던 항아리가 인도 델리의 간디 기념관 2층에 남아 있다. 오늘날 그의 치열한 정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가난과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의 분리 독립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독립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으며 최후

까지 통일 인도를 호소하다 총탄에 쓰러진 간디. 그가 사랑하고 걸었던 진리의 길을 바라본다.

간디가 살고 간 길 속에서 과거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적 통치질서에 맞서 민주화운동으로 산화한 불꽃같은 혼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잉태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수가 된 선열들의 피와 땀의 흔적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핵 문제로 우리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이 때, 이 땅 위에서 전쟁과 분열과 미움이 없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어 본다.

21세기에 마지막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저마다 평화의 열망을 꽃 피운다면 우리의 꿈은 실현되리라 기대해본다.

간디라는 타오르는 불꽃이 새 시대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밝았다.

2학년이 되기 전 까지…….

나는 그때도 지금도 모르겠다.

내가 왜 왕따였는지…….

마지막

나의 초등학교 생활 1년 동안 나에게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렇게 나는 혼자서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3학년이 되었다.

몇 말을 걸어주는 애들이 있어 너무 기뻐했다. 나는 그 몇 안 되는 애들과 친해지길 노력했고, 우린 친구가 되었다.

4학년이 되어서 우린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올해는 꼭 친구 많이 사귀자!’

나는 자기 암시를 하고 새 반으로 갔다. 몇 주 지나 우리들이 말하는 잘 노는 애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고, 나는 친구가 된 줄 알았다.

그건 나의 착각이었을까?

왠지 모르게 그 애들과 같이 놀면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실수를 하더라도 무지 비웃었다. 그렇게 또 일년이 지나 나는 5학년이 되었다. 5학년이 되었을 때 난 혼자였다. 그동안 든든하게 옆에 있어준 언니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역시나 잘 노는 애들은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난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선생님이 칠판에 나가 뭔가 쓰라고 하거나 발표를 하라고 하면 모두들 킁킁 웃거나 소곤소곤 거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하교 길이었다.

난 우연히 예전에 언니에게 혼났던 남자 아이를 봤다. 그 남자애는 나를 보고 지나치는가 싶더니 이내 뒤로 돌아 나를 발로 차고 가버렸다. 나는 길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 남자애가 정확히 내 무릎을 찔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날 그 남자애는 담임 선생님께 대결레 자투로 영덩이를 맞았다. 그 뒤 그 아이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우연히 어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야, 개 있잖아. 병 있대. 같이 있으면 병이 옮는데. 정말 재수없어.”

나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병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해롭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물론 지금은 병이 깨끗이 나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 죽여 울었다. 행여나 소리가 날까봐 입까지 손으로 막고서.

드디어 6학년이 되었다.

나는 매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했지만 한편으론 어서 중학생이 되어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이번에 만난 선생님은 지금까지의 선생님들과 달리 많이 독특했다. 체육시간이면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남녀 함께 손을 잡고 축구를 하게 했다. 물론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에겐 그저 악몽같은 시간이었다. 남자애들은 나와 손을 잡게 되면 마치 손이 썩어 들어가기라도 하듯 매우 꺼려했다.

2학기에 접어들 무렵 한 남자애가 전학을 왔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은 한 시간 동안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난 정말 난감했다.

나랑 같이 앉을 사람도 앉을 곳도 없으니 말이다.

난 결국 남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실내화 한짝이 내 머리를 쳤다. 그 실내화는 전학 온 아이의 것이었다. 언제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가 자기 자

리에 앉는 것이 몹시 불쾌했다 보다. 나는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았다. 참으로서
럽게 울었다. 내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그 날 아이들은 선생님께 혼났고 그 뒤 날 잘 놀리지도 않았다.

2학기가 무사히 끝나고 난 정말 기뻐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4명밖에 가지 않은
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날.

그 날 선생님은 종이를 돌려가며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하셨다. 나는 고민하고
정성들여 썼지만 나에게 돌아온 종이에선 그저 마지못해 적은 짧은 글 뿐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중학생이 된 난 비교적 순탄한 1, 2학년을 보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나
에게 악몽같은 날들이 찾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몇 달 뒤 나는 어떤 작은 사건으로 친구와 싸우게 되었다. 설마 이게 악몽같은 날
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몇 번이고 해보고
편지도 써 보았다. 하지만 맘을 돌리기는커녕 다른 친구들까지 떠나 버렸다. 애써
괜찮은 척해보지만 이젠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내가 수업시간에 뭔가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다. 이
젠 정말이지 그 애들이 땀기까지 한다. 내가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해도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으니 이젠 그냥 무시하려고 한다.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여전히 그들이 나를 비웃는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뜨
끔하니 말이다.

사회도 이런 것 같다. 처음 보단 나아졌지만 다시 문제들은 생긴다. 잡초를 뽑아
도 다시 나는 것 같이 민주사회는 이론만인 것 같다.

그건 나에게 머나먼 유토피아 같은 것.

“우당탕, 와지근~!”

“덤벼, 덤벼! 어쭈~ 이게 까불어?”

“아~ 그래, 넘어 뜨려. 코피를 터뜨려, 코피를……”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동철이와 민종이의 싸움이다. 동철이는 우리 반의 최고 모범생이고, 민종이는 동네 파출소에서 알아주는 최고 말썽꾸러기다. 아무 잘못도 없는 동철이를 민종이가 자주 괴롭히자 동철이가 그만 참지 못하고 대든 것이다.

싸움은 싫어

하지만 몸도 약한 데다가 안경까지 쓴 동철이는 일방적으로 밀리며 맞기만 했다. 나는 둘 사이에 뛰어들어 싸움을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떼어놓기는커녕 몇 대 얻어 터지기만 했다. 주먹으로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아팠다.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신이 나서 응원까지 했다는 점이였다.

어느 틈에 누가 알렸는지, 담임선생님께서 혈레벌떡 뛰어오셨다. 선생님께선 자초지종을 들어보시더니 싸움을 한 두 아이는 이마를 마주 대고 서 있게 하고, 우리 반 전체에게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잘못된 점이 없는 사람만 손 내리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손을 내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슬그머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손을 내린 친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

한참 뒤, 선생님께서 손을 내리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너희들이 왜 벌을 받았는지 아니? 친구가 싸움을 하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싸움을 더 부추겼기 때문이야. 물론 싸움을 한 당사자들도 나쁘지만, 싸움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한 너희들이 더 나빠. 싸움을 부추기면 더 큰 싸움이 된다는 걸 모르니?”

다음부터 절대 싸움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누가 싸움을 한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알았지?”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이 많았다. 싸움을 한 아이들도 나쁘지만, 그 싸움을 말리지 않고 부추기는 아이들이 더 나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고 보니 미국과 이라크 전쟁도 그런 것 같았다. 물론 전쟁에 반대하는 나라도 많았지만, 영국같은 나라는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 쳐들어가지 않았던가?

그런데 전쟁은 왜 하는 걸까? 내 생각엔 우리 어린이들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나라끼리 말다툼을 하다 그게 심해지면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전쟁인 것 같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싸움과 달라서, 한 번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왜 일으키는 걸까?

옛날에는 군주나 제왕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려려고 전쟁을 했다고 한다. 또한 세계를 제패하려는 욕심을 가진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나라의 국민을 죽여도 되고, 모든 걸 파괴해도 된단 말인가? 내가 어린 탓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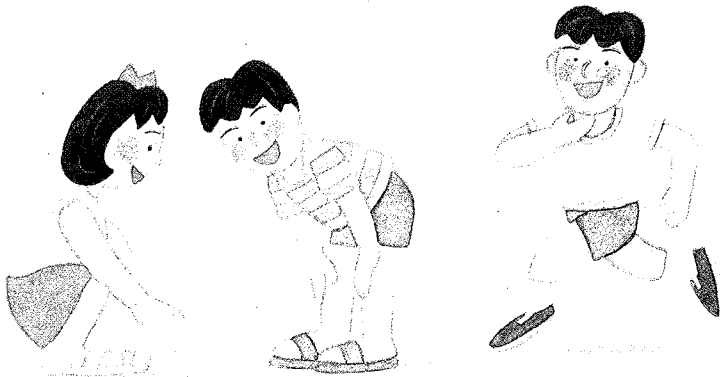
또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싸우고 군인들만 죽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TV나 신문을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군인보다도 더 많이 죽거나 다친다는 것을 알았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런 비명을 질러대는 불쌍한 어린이를 TV에서 보았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저 아이는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전쟁은 무서운 싸움이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싸움이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싸움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미래엔 결코 전쟁이

라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싸움보다는 평화를, 주먹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나간다면 말이다.

“아~ 싸움은 정말 싫어!”



나의 뇌리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불현듯 두 사람의 친구 얼굴이 떠오른다. 한 사람은 현재 정치에 몸 담고 있는 J이고 또 한 사람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난 오씨 성을 가진 친구이다. 두 친구 모두 나와는 대학 동창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신문사에 입사하여, J는 편집국 정치부에서 정치권을 출입하였고 오씨는 편집국 교

열부에서 교정일을 보았었다. 그런데 교열부에 있는 오씨를 만나면 그는 그 당시 만해도 활자조판편집이어서 문선부에서 올라오는 개라인쇄지며 조판된 대판교정지까지 초교, 재교, 삼교까지 이잡듯 하며

민주주의 밑얼이 되어

살다간 내 친구 이야기

오식을 잡아 내고 [오케이]를 놓아도 인쇄되어 나온 신문에서 오자가 발견되는 게 죽을 노릇이라는 푸념이었다. 그 당시 [β꺾시절이어서 한자로 된 [대통령]이라는 활자는 걸핏하면 ‘犬’ 자가 ‘犬’ 자로 잘못 문선되어 [견통령]이 되는 바람에 아예 [대통령]이라는 활자는 실로 묶어 오식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런 시절, 급기야 군부는 사전검열이다, 언론지침이다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탄압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그 친구들이 몸 담고 있는 신문사도 편집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언론검열에 맞서 기관원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고 농성에 들어갔었다. 그 때 교열부의 내 친구는 공무실 운전기 밑에서 밤을 세우며 언론자유를 위해 농성하다가 한밤중에 들이 닦친 기관원과 공권력에 의해 모두 연행되어 갔었고, 내 친구도 소위 언론투위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한동안 영어생활을 하였었다. 그런데 언젠가, 동창회 모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었다. 바로 정치부의 J를 두고 한 말이었다. J는 그 날 신문사 근처 회식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심코 신문사에 들렀다가, 그 순간 들이 닦친 기관원에 의해 농성자로 몰려 연행되었을뿐, 진정한 언론투쟁에는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J가 그 때의 투쟁 경력을 내세워 정치인으로 변모하면서 끝내는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J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몸으로 부딪치며 싸웠던 교열부의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정치부 출신 J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것은 언론의 자유라며 진정한 자유국가는 자유로운 언론이라고 열을 올리며, “언어는 땅의 딸이지만 행위는 하늘의 아들”이라며 민주투사인양 외치고 다닐 때, 교열부에 있던 그는 형을 살고 형무소를 나온 후에도 한동안은 행방마저 묘연했었다. 그러나 내가 법정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노란 오랏줄에 묶이고 두 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에 채워진 채 구치감에서 나와 법정에서 서서 당당하게 쏟아냈던 그의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자유가 없는데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노예”라며 그런 노예가 되기 싫어 언론자유를 사수했노라고 말한 최후진술의 말이 또렷하게 기억되었었다.

그런 그 친구는 한동안 을지로 인쇄골목을 드나들며 조그마한 출판사를 꾸려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그 후론 또 다시 행방이 묘연하였었다. 그 후 그가 경영하던 출판사가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한동안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 그가 시골에 은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다. 그는 출판사가 부도가 나자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 빚을 정리하고 홀연히 빈털터리가 되어 북한강 줄기가 바라다 보이는 한촌에서 초라하게 묻혀 살고 있었다. 마치 그는, 산골에서 귀까지 먹은 소경처럼 세사(世事)를 다 떨치고 벼슬 버린 한처사(寒處士)가 되어 도롱이를 두르고 비를 피하며 아내와 함께 밭에서 파종을 하며 은둔하고 있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당신도 요즘 한창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명예회복과 함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받아야 할 게 아니냐며 정치부 기자였던 J의 이야기를 꺼

내자, 그는 “퍼스널리티”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연기자가 쓰는 가면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신문사에서 교정일을 볼 때를 상기시키며 말하였다.

세상에는 마치 “바른 글자”처럼 숨어 있는 “오자”같은 존재도 있다면서, 그런 존재들로 인해 민주주의라는 전체의 문장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가식으로 위장하여 진짜 민주투사처럼 행세하는 “오자”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며 허허 웃었다.

그와 나는 그 날, 술잔을 비우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술기운을 빌어 민주주의라는 사상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한낱 꿈이라며, 그런 지식은 유리로 만든 의안(義眼) 같아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며 은둔생활에서 벗어나라고 하였으나 그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는 F.파이커가 주장한 “국가의 상대란 사상이 자유롭고 언론이 자유롭고, 노동이 자유롭고 신앙이 자유로운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는 말까지 꺼내놓으며, 민주주의를 역설하더니 나에게 대뜸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그는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정치가 아니고 광복한 자유라면서 바로 자유가 유익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자제되어야 한다고도 말하면서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은 침묵할 때도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생계를 위해 바로 근처 마을 입구에 들어선 피혁공장에라도 들어가 막노동이라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망 끝에 고고한 선비처럼 천승을 사양하더니 한 푼 돈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느냐고 하자, 그는 노동하는 입장에서 행복은 일하는데 있다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1년쯤 지났을까, 그는 한동안 그가 말한대로 근처 피혁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찾아갔을 때, 그는 뜻밖에도 팔이 썩어 가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 공장에서는 수입 우피를 사오면 드럼통에 담가서 각종 화공약품으로 유제처리 한 후 무두질이나 기계로 탈모시키고 색색으로 도장하여 구두나 핸드백을

만드는 예정용 갑피를 만들어 내는데 그런 작업과정에서 그의 몸에 산과 암모늄염이 축적되어 끝내 몸의 일부분이 괴사되고 무력증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랬던 그는 그 날 바깥 마른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그는 소외된 노동자 편에서 살다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쟁취할만한 가치가 있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도 한동안 민주화를 위해 외쳤던 그 때의 시절이 지금의 자신을 위로하며 존재했던 의미라면서 뒤늦게나마 회사에서 나온 배상금도 몽땅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내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4개월이 지난 초여름, 그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끝내 듣고 말았었다.

온천지가 푸름으로 덮히고 만개한 꽃이 영안실 주위에도 시샘하듯 다투어 피고 빗방울이 그 위를 적시는 날, 내가 그를 분양하고 영안실을 나올때, 그가 나와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하던 말이 생생하게 내 발목을 잡았다.

민주주의란 마치 세상에 숨어 있는 그릇된 글자를 골라 내는 것이라 했던가.

그는 그런 잘못된 글자를 잡아내기 위해선 교정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었다. 위장하여 진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글자를 발견하기 위해선 겉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 속으로 글자를 써보는 심교(心校)라는 교정방법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말 끝에 분명히 말하엿었다.

민주주의란 잘못된 글자만을 골라 뽑아 내는 것이 아니고, 잘못 박힌 글자도 바로 세워 함께 문장이 되는 사회,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와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그의 또렷한 음성을 다시 듣는 것만 같았다. 그는 정말 민주주의가 말살당한 세상에 살면서 영혼과 양심을 핏박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청정(淸澄)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다가 간 친구였다고 외치고 싶었다. 그는 그런 맑은 녀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지켜 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바로 민주주의는 그런 양심을 가진 국민의 헌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임에 틀림 없었다.

버나드 쇼가 말한 “그 시대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의 변혁이나 발전도 이루어진다”는 말도 상기되었다. 그는 정말 이 시대와는 엇박자 같은 존재였지만 그는 민주화를 위해 짧게 살다간 민주화의 증인이었다. 그는 결코 좌절을 모르는 승리자였다.



한 열사의 무덤가에 앉아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대지의 끝에서
 배는 마침내 푸른 바다로 나아갔다.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을 울며 다니다
 바람은 파도를 간질이며 달음질쳤다.

수 만리 바다 건너 태양이 작열하는 검은 대륙
 맨발로 드넓은 사바나를 달리며 해를 쫓던 어린 시절
 그 몽클한 추억과
 나의 혈육,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두고 온 곳

아이의 손에 잡힌 풍선과 같이
 그러나 나는 나아갈 수 없다.

이 곳에서 나는 한낱 이방인일 뿐.
 이 공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어
 저는 다리로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고



나는 매일을
끊임없이 들려오는 기계소리에 손을 맞췄고
어느새 몸엔 쇠냄새가 배어왔다.
나에게 우주는 5평 남짓한 작은 방
물 젖은 모래 주머니같이 지친 몸을 누이면
타국의 낯선 사물은 혼곤한 꿈의 연기에 잠기고
그 얼굴과 바람과 들판과
눈물이 되어 왔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늙은 어머니의 주름을 보며
밤마다 다짐처럼, 명령처럼 작별을 되풀이했다.
어머니의 주름은 날 좋은 칼을 댄 듯 깊어져 있고
나는 이 땅에 발이 묶인 채 소리 질러 울다가
까무러치듯 잠이 잤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대지의 끝에서
높이 외치며 배는 푸른 바다로 나아갔다.
하지만 나는 물결지는 그리움을 삼키며
땅 디딘 발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

하얀 목련

겨우내

눈보라가 마실 왔다가

채 돌아가지 않은 목련가지에

하얀 꽃망울이

얼굴 내밀고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따뜻해서 일까?

뽀얀아가 손처럼 생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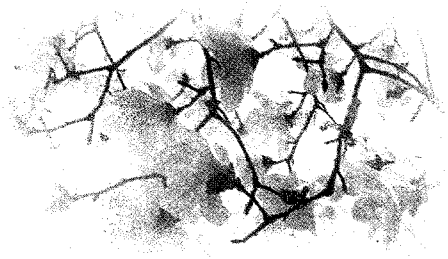
하얀 목련 꽃잎이

화들짝 열렸어요.

달 듯 말 듯

꼬꼬 발 달고

꽃잎 하나를 따다가



“우리는 하나-”

깨알같이 적어

북녘하늘로

훨훨 날려보내고 싶어요

어느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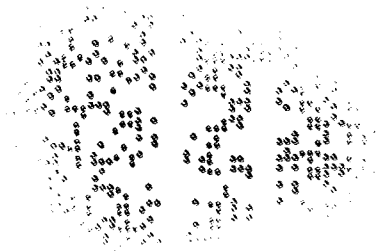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에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되지요.

점자 도서관

눈이 있지만 눈이 어두운 나도 점자일까
 아무도 앉아 있지 않는 점자도서관에서 누구나 읽지 못하는 점자책 한 권 꺼내 펼쳐본다.
 죽은 나무피 깊숙이 새긴 점자들 까칠한 모래알처럼 박혀 있다.
 바늘 끝으로 허벅지를 꼭꼭 눌러 새긴 문신모양이다.
 보이지 않는 점자들을 더듬는 내 열개의 손가락에 불을 환하게 켜본다.
 글자 부스러기들 만져진다.
 짓눌린 날파리떼 같은 점자들.
 아무리 손에 불을 켜도 따라 들어가고 어두운 골목길이다.
 누가 저렇게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켜고 내 감은 눈 속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한 마리 휘파람새도 불러내지 못하는 어둠을 더듬거리다가 나오는 점자 도서관,
 내가 더듬다가 놓쳐버린 점자들 환한 햇살 속에 먼지 폴폴 날리며 풀씨처럼 날아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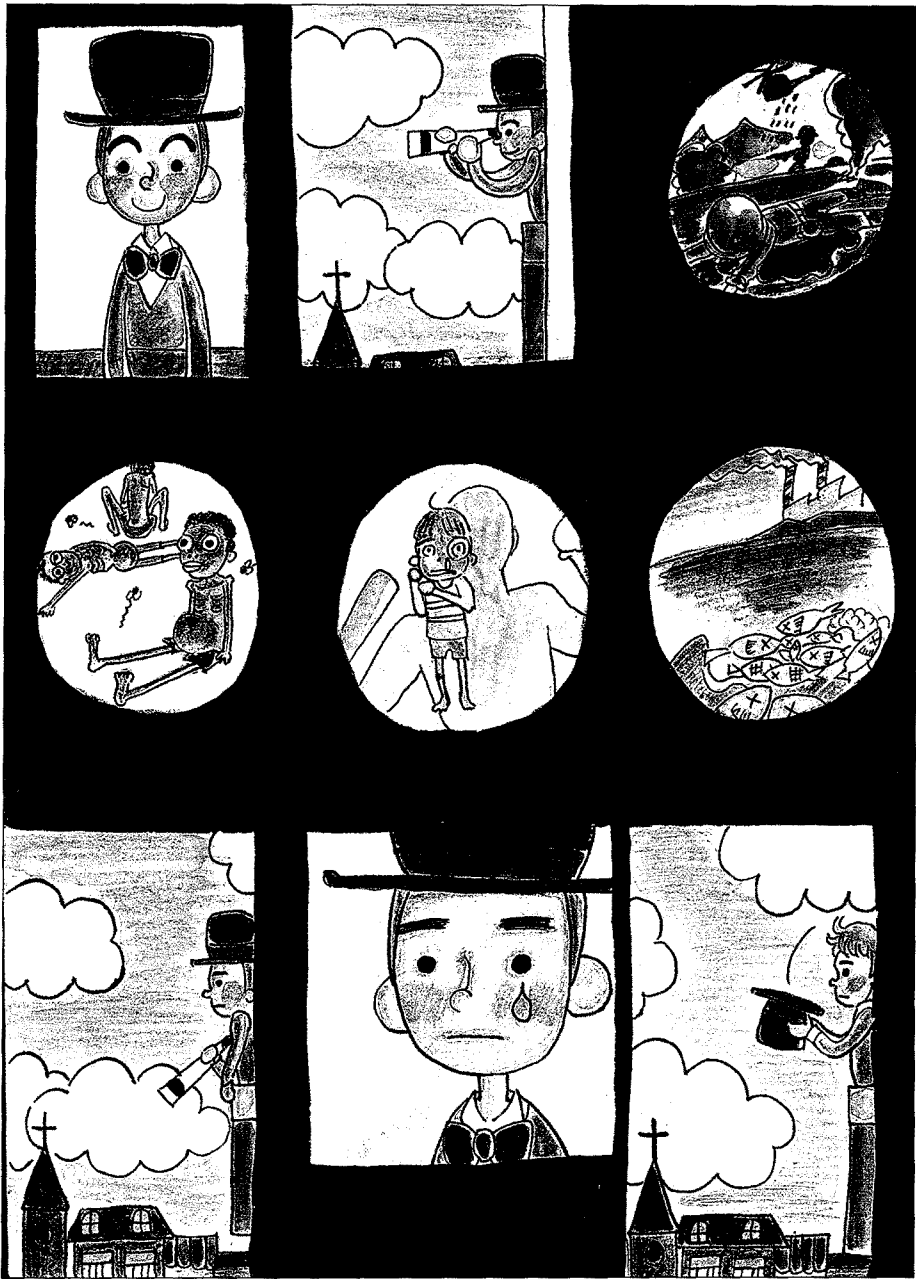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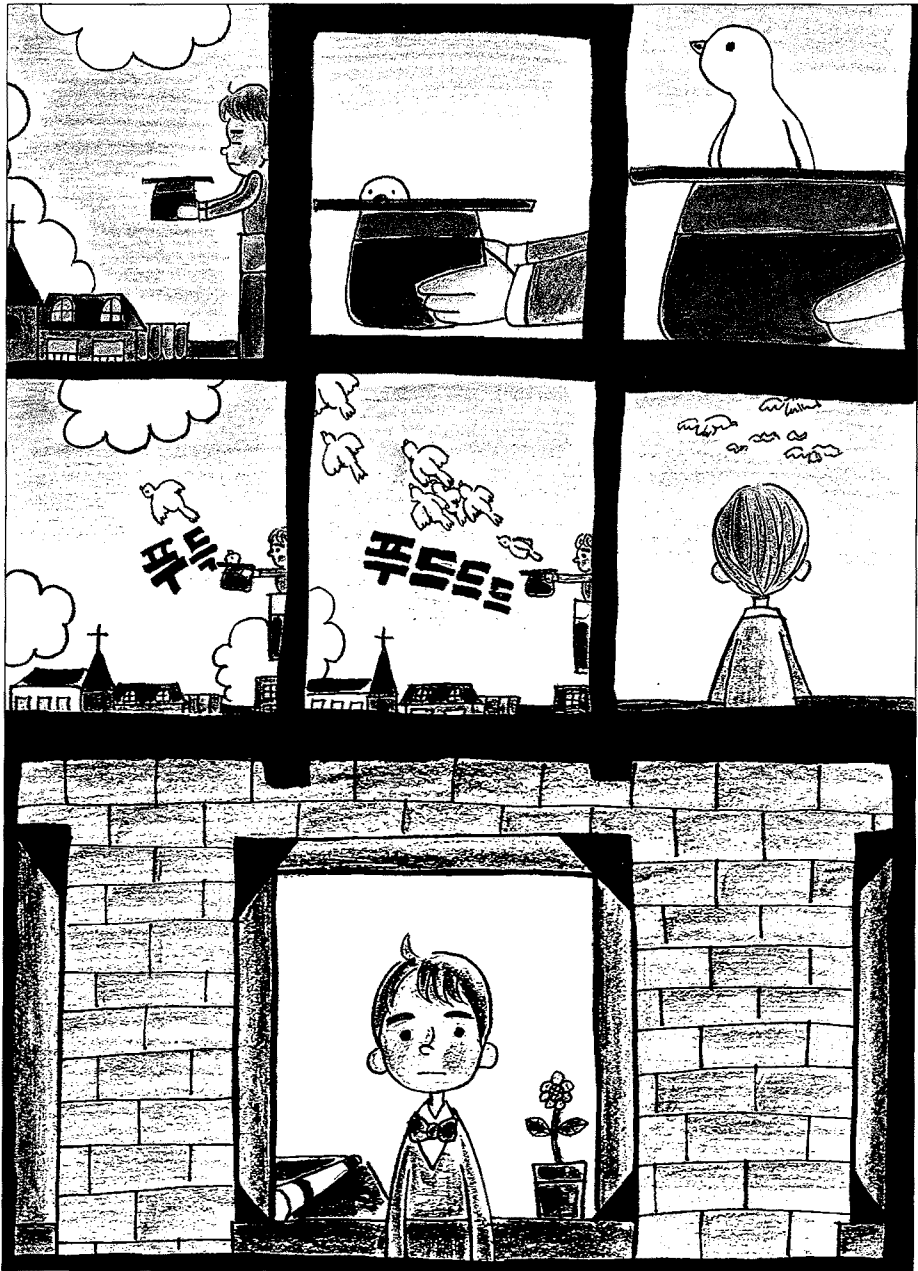


누가? 왜? 그들을 눈물 짓게 했는가?, 광영여고 3학년 박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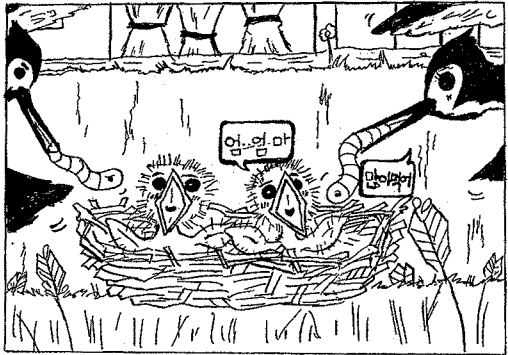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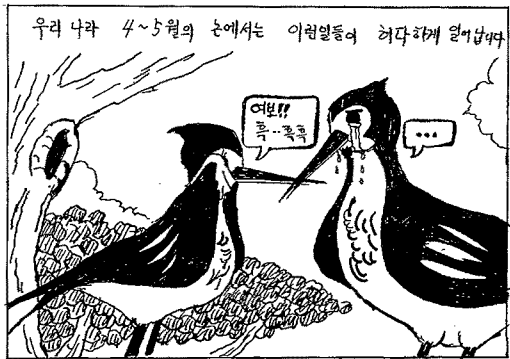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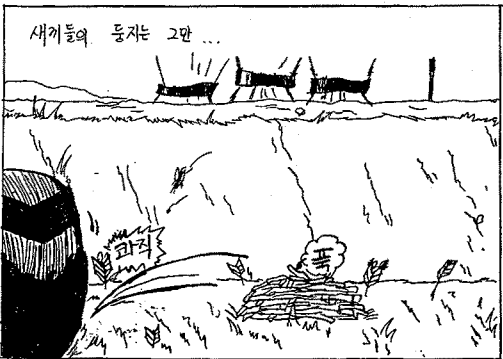
신림여중 1학년 허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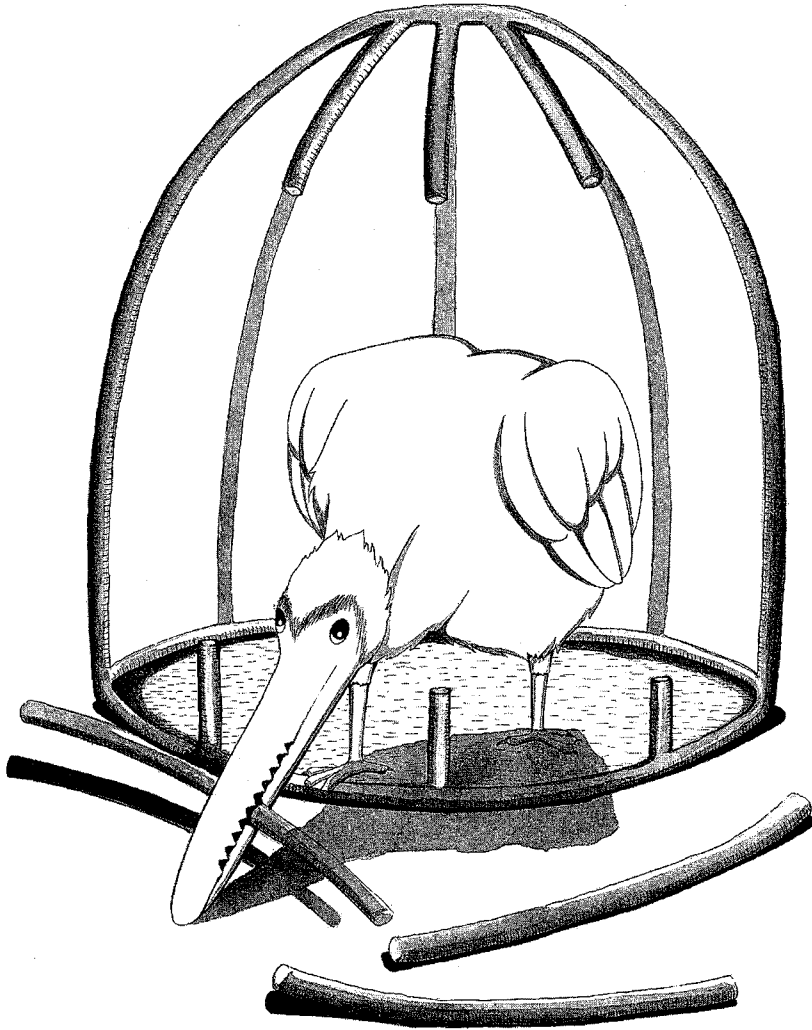


그들에게 평화를, 한국애니메이션고 1학년 김민선





장다리 들떼새, 전주 효림초등 6학년 은태현



자유를 위한 진화, 김은영